

# 권력·사랑 ... 미녀들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유럽사



공부의 배신

데레저위츠 지음

## 획일화 된 교육시스템 고발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교육 시스템은 그저 '똑똑한 양떼'를 키울 뿐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교육의 지상 목표를 명문대 입학, 나아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에일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윌리엄 데레저위츠가 펴낸 '공부의 배신'은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책은 대학의 현실을 깨닫는 비판자가 아니라 대학의 본질과 진학의 의미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불편한 현실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도 '스스로 고아가 되어라' '성공에 대한 욕망은 일종의 중독이다'와 같은 주제로 학생들의 내면을 파고든다. (다른: 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교양으로 읽는 인문학 클래식

이현성 지음

## 중 고전서 보는 '지도자 자격'

지도자는 혼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과 맺는 상하관계에 활적인 관계가 추가되어 전체의 관계가 형성된다. 인간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자들은 3000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교양으로 읽는 인문학 클래식'은 비교적 친숙한 중국 고전 15권을 정리한 인문학 교양서이다. 지금까지 동양고전, 심리학 관련 다양한 저서를 펴냈던 이현성 씨가 이번에는 중국 고전을 토대로 '지도자의 자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다.

저자는 지도자의 요건은 대국적인 판단 능력, 전체적인 조정 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최대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본다. 역사 속 패자, 재상, 지략가 등의 일화를 근거로 풀어내는 지도자의 자격은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목, 분별력, 결단력을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다. (스타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미녀들의 초상화가 들려주는 욕망의 세계사

기무라 다이치 지음



"아네스 소렐은 프랑스의 궁정에서 '공인된 총회'라 불린 최초의 존재였다. 사를 7세를 매혹시킨 아네스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며 궁정에서도 사실상 왕비처럼 행동하고 정치에도 관여했다. 이렇게 프랑스 왕의 공인된 애첩은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왕을 모시는 직무를 갖게 되었다. 아네스는 점차 궁정의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왕비가 아니라 왕의 애첩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프랑스의 '전통'도 그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끈다. '미녀' '초상화' '욕망' '세계사'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불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아마 '욕망'이라는 단어가 내재하고 있는 아우라 때문일 것이다.

사실 미녀를 보는 것이나, 미녀의 초상화를 보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러나 그 미녀가 역사속의 인물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역사와 미인은 적

잖이 부정적인 결합으로 엮이곤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사랑과 욕망의 수레바퀴에 의해 움직여왔다. 그 이면에는 늘 미녀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은 현시욕의 욕망에서 자신과 여인들의 초상화를 남겼다. 일반적으로 초상화는 종교나 문화 사조, 유행을 반영하거나 정략결혼을 위한 선보기용으로 제작되었다.

초상화를 통해 서양사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서양 미술사가인 기무라 다이치가 펴낸 '미녀들의 초상화가 들려주는 욕망의 세계사'는 미녀들의 초상화에 얽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눈길을 끄는 초상화 속 여인들은 미인박명(美人薄命)형이다. 일찍 꽃피고 일찍 저버린 여인들의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준다. 프랑스 궁정에서 최초로 '공인된 총회'로 활약했으나 갑작스럽게 죽은 아네스 소렐, 스페인 함스부르크가의 종언을 막지 못한 비운의 마르가리타 왕녀, 막시밀리안 1세(훗날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총애를 얻었지만 임신 중 낙마사고를 당한 마리 드 부르고뉴는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준다.

앞글은 운명의 장난을 피하지 못했던 여인들도 있다. 왕위에 위협이 되었던 메리 스튜어트를 제거했으나, 사후에 메리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엘리자베스 1세(이 사례는 조선실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역사는 시공을 초월해 반복되나 보나), 앙리 4세의 애첩 가브리엘 데스테레는 왕비로 신분이 상승되기 직전 죽음을 맞았다.

인생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프랑수아 1세 왕과 그 아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았으나 쓸쓸한 노년을 맞은 디안 드 푸아티에, 여왕보다 여인으로 사랑을 좇다 죽음을 맞은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그에 해당한다.



서양의 초상화는 종교나 문화 사조, 유행을 반영하거나 정략결혼을 위한 선보기용으로 제작되었다.

<울렛북스 제공>

초상화 속 주인공 이야기가 심각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지참금 문제를 희화화한 내용은 적당히 눈길을 끈다. 엄청난 지참금 때문에 마리 드 메디시스와 결혼하게 된 앙리 4세에 대한 심리 묘사는 이렇다.

"실제의 마리는 앙리가 봤던 초상화처럼 흐리흐리한 미인이 아니었던 데다, 프랑스 미녀에게 익숙한 앙리의 눈에는 그녀가 촌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앙리로서는 초상화에 속은 심정이었다."

미모에 집착했던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공주병'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주위의 어느 누구도 충고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는 시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결핍하면 주위의 남녀관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여 마치 '노처녀 큰언니' 같았다"는 묘사가 이를 증명한다. <울렛북스·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원자 결합 알면 이성간 끌림 이해된다



물리학 이야기

크리스틴 매킨리 지음

"와"라는 감탄을 들었다. 이 유리관은 네온등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우리에게 는 그리 대단해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돼 있다.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이나 생명공학이 아닌 물리에 남다른 흥미나 자신감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과연 물리학은 어렵고 특별한 분야일까?

미국의 기계공학자이자 TV쇼 진행자로 알려진 크리스틴 매킨리의 '물리학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물리학의 질서를 알려준다. 책은 저자가 자신의 학창 시절 에피소드와 물리학 지식을 자연스럽게 접목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을 경험담으로 보여준다.

이를 더면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사례는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혼자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 타인의 도움을 지레와 지레목처럼 활용하라는 식이다.

저자는 물리 법칙을 통해 행성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알면 개인적 삶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원자들 간의 결합은 이성 간의 끌림을 이해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준다. 물이 끓어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 현상은 삶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물에 뜨는 부력 현상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갈매나무·1만4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옛시에 현대적 스토리텔링 보태다



옛시 속에 숨은 인문학

이상국 지음

한 이상국이 아시아경제신문에서 2년 이상 인기리에 연재했던 시평칼럼 '아, 지詩' 중에서 인문학적 향취를 깊게 느낄 수 있는 옛시를 엄선하여 만들었다. 특히 독자들이 옛시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을 더했다.

옛 사람들이 남긴 시를 읽다가, 그 속에 숨어있는 생생한 스토리를 발견했다는 저자는 "옛 시야말로 문사철(文史哲)이 어우러진 인문학 콘서트 현장이었다"고 전한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시공간을 이동해 옛사람과 함께 노닐며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솔로래빗·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200억 혜택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                                      |  |
|------------------------------------|--------------------------------------|--|
| <p><b>근린상가 단독주택</b><br/>나대지 원룸</p> | <p>담보 비율 : 최대 70%<br/>최저 연 3.8%~</p> | <p><b>신용대출 (급여소득자)</b><br/>(연금수급자)</p> |
| <p>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p>           |                                      |  |
| <p>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p>               |                                      |  |
| <p>대출기간 : 최대 5년</p>                |                                      |  |
| <p>연금리 : 최저 7.0%</p>               |                                      |  |

빛고을새마을금고

|   |  |  |
|---|--|--|
| <p>본점<br/>062)525-2770~2<br/>(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 <p>용주점<br/>062)525-2774~5<br/>(용봉동 주민센터 앞)</p> | <p>삼각점<br/>062)525-2776~7<br/>(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 (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
|--------------------|----------------------|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야기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